

1분기 김 수출액 42.8% ↑… ‘검은 반도체’ 열풍 주도

전국 지자체 중 수출 ‘1위’ 김 가공기업 적극지원 성과

목포시가 전국 지자체 중 김 수출액 1위를 차지하며 세계시장에서의 ‘검은 반도체’ 열풍을 주도하고 있다.

6일 목포시에 따르면 1분기 김 수출액은 3,032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2.8% 증가, 전국 지자체 중 수출 1위를 차지했다. 이는 목포시 전체 수출액 3,595만 달러의 84%에 해당,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도 수출 실적을 견인하고 있다.

목포시는 지난해에도 김 수출액 1억3,308만 달러를 기록해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하며 김 수출 전국 1위를 차지했다.

목포시는 민선 8기 들어 김 가공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해외 마케팅 활동에 나서는 등 김 산업 육성과 세계시장 확대에 나서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AI기반 마른김 품질 등급 판별 솔루션 개발 및 실증’ 사업에 선정되는 등 연구개발 분야에서도 두각을 보이고 있다.

목포시는 지난 2022년 (재)목포수산물식품지원센터를 전국 최초 해양수산부 제1호 김산업전문기관으로 지정받아 김 산업 전문화의 길을 열었다.

또 김 가공과 수출 기업을 입주시켜 연구개발과 수출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수산물수출단지 조성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수산물수출단지는 오는 2026년까지 총 1,137억원을 투입해 연면적 4만6,612㎡ 규모의 조성된다.

지역수산물을 이용한 소비 트렌드 맞춤형 신제품 상품화 등 수산물식품 가공산업 육성을 위해

임대형 가공공장, 국제마른김거래소, 연구지원시설, 냉동·냉장창고, 수산물 거래소, 수출지원시설 등이 구축될 예정이다.

임대형 가공공장은 김을 비롯한 해조류, 전복, 어묵, 어패류 등 목포에서 주로 생산되는 수산물을 가공·생산하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갖춘 36개소의 가공공장이 들어설 예정이다.

국제 마른김 거래소는 마른김 거래의 유통 효율성을 높여 국내외 바이어를 위한 마른김 거래 허브 역할을 하게되며, 오는 2026년 개장해 목포 중심의 마른김 유통을 선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목포시 관계자는 “세계시장에서 목포시 김 제품의 글로벌 경쟁력이 입증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김을 비롯한 수산물식품 산업을 전라적으로 육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목포=박승경 기자



목포시의 1분기 김 수출액은 3,032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2.8% 증가, 전국 지자체 중 수출 1위를 차지했다. 김 가공 모습. 목포시 제공



목포시가 최근 시민문화체육센터 소공연장에서 ‘목포시 청렴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목포시 제공

휴식·창업공간 ‘청년쉼터 다락’ 내달 개관

카페 운영자 공개 모집

목포시가 청년 소통과 창업을 위해 조성한 ‘청년쉼터 다락’ (이하 다락)의 6월 개관을 앞두고 운영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6일 목포시에 따르면 연면적 299.84㎡, 지상 2층 규모로 온금동 3-9번지에 위치한 다락은 지역청년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과 창업공간을 제공한다.

1층은 카페, 2층은 회의실, 북카페 등 소통공간으로 각각 조성됐다.

목포시는 지난 2021년 특별교부세 5억 원을

확보해 당초 이로근린공원 내에 컨테이너 형태로 설치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컨테이너가 공원법상 설치 불가능한 부적합 건축물임에 따라 부지를 현재 위치로 변경했다. 이후 구조를 컨테이너에서 철근콘크리트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시비 9억원을 추가 투입했다.

목포시는 목포시의회 청년의원, 청년단체 등과의 간담회를 갖고 건립 및 운영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했다. 또 도비 1억원을 확보해 지난해 12월 환경개선 공사를 마무리했다. 올해는 건축물 등기를 완료하고 무장에 본

인증 승인 심사를 받았다. 현재 카페 운영자를 공개 모집 중이며 운영자를 선정하면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목포시는 다락이 청년을 위한 공간에만 머무르지 않고 시민, 관광객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쉼터이자 원도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거점으로 정착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목포시 관계자는 “청년들이 머무르고 활동하며, 서로 교류하고 성장할 수 있는 청년쉼터 다락이 되기를 바란다”며 “오는 6월 개관과 원활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앞으로도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목포=박승경 기자

옥암지구 교차로 구조개선 사업 본격 추진

교통 흐름 개선·시민 편의성 증진

목포시는 지역 내 주요 교차로의 원활한 교통소통과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옥암지구 교차로 구조개선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사업은 지난 2002년 중앙교통영향평가위원회가 남악신도시 개발 승인 시 제시한 조건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사거리 및 전남도청 입구 사거리 지하차도 설치’ 계획을 현재의 교통 여건 변화와 실질적 수요를 반영해 평면 교차로 방식으로 조정해 추진하는 것이다.

구조개선 대상 교차로는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사거리와 전남도청 입구 사거리로, 목포·무

안(남악)·영암 등 전남 서남권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광역 교통축의 중심지다.

목포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남악신도시, 하당, 목포IC 등 주요 권역 간 교통 흐름이 한층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되며, 보행자·통행 안전도가 향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목포시 관계자는 “이번 구조개선 사업은 변화된 교통 여건을 반영해 기존 계획을 합리적으로 조정한 것으로, 평면 교차로 방식은 유지관리 측면에서도 효율적이고, 향후 교통 상황 변화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 인프라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목포=박승경 기자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비 지원

목포시는 다문화가족 자녀의 교육 기회 확대와 학업 및 진로 역량 개발을 위해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를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교육급여 수급자가 아닌 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2007~2018년생) 자녀로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연간 초등학교생 40만원, 중학생 50만원, 고등학교생 60만원이며, NH농협 카드 포인트로 지급된다. 신청 기간은 1차는 30일까지, 2차는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며, 목포시가 족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목포시가족센터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목포시가족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목포=박승경 기자

‘청렴 페스티벌’…퀴즈 등 참여형 문화행사 호응

목포시는 최근 시민문화체육센터 소공연장에서 ‘2025년 목포시 청렴 페스티벌’을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청렴 페스티벌은 공직자들의 청렴 의식 제고와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마련됐으며, 400여명의 목포시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다양한 콘텐츠로 진행됐다.

‘청렴, 우리 사이 이야기’를 주제로 열린 청렴 토크에서는 직원들의 질문에 목포시장 권한 대행 이상진 부시장이 직원들과 바로 응답하며, 조직 내 청렴과 소통에 대한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다. 이어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관련 법령을 주제로 한 ‘청렴 퀴즈 타임’이 스마트폰을 활용한 방식으로 진행되어 높은 참여를 이끌어냈다.

공직사회 내 청렴 이슈를 다룬 상황극도 무대에 올랐으며, 대중가요에 청렴 메시지를 담은 ‘스프링스’ 밴드의 공연은 공직자들의 공감과 호응을 얻었다. ‘드루와’, ‘불편러’ 등은 청렴 가사로 개사해 공연의 취지를 살렸다.

목포시는 청렴도 향상을 위한 반부패·청렴정책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청렴정책회의, 청렴교육, 찾아가는 청렴간담회, 상급자 모시기 폐지 등 부패 취약분야 개선을 위한 다양한 청렴 정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이상진 목포시장 권한대행은 “공직사회가 청렴해야 시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며 “이번 청렴 페스티벌이 조직 전반에 긍정적 변화를 이끄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목포=박승경 기자

최고의 품질로 교체 시공하는

광주활성탄이 함께 하겠습니다

활성탄·각종필터 전문회사

(주)광주활성탄

수질분야

대기분야

- 입상, 분말, 성형 활성탄 제조전문업체
- 각종 필터, 이온교환수지, 복합여과제 전문

T E L. 062) 361-9300. 9400
Mobile. 010-4660-7700
E-mail. kjcarbon@hanmail.net